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양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양악)
- 회의일시
 - (1차) 2022.11.22(화), 14:00~17:00
 - (2차) 2022.11.30(수), 14:00~17: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경아, 백영은, 서창규, 이미배, 이소영

지속연주지원 사업은 국내 작곡가의 창작 관현악곡 재공연을 활성화하고 국내 연주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작곡을 재연하고자 하는 관현악 연주단체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음악(양악)분야에 지원신청한 총 25건의 사업 중 필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건의 사업은 행정결격 처리되었습니다. 음악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온라인 전수검토를 진행하고,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심의를 거쳐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숙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미 작곡된 창작곡의 재공연을 통해 창작곡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청중들에게 창작 관현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수행해낼 수 있는 국내의 많은 단체들이 지원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심의기준 “단체의 실행역량의 전문성(40%),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타당성(30%), 예산계획의 타당성(20%), 관객개발 및 기대효과(10%)”에 따라 실제로 본 지원사업이 연주단체의 내실 있는 공연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기능해 보고자 했습니다.

1차 서류 심의에서는 심의위원들의 개별 심의와 집단 토론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이고도 변별력 있는 사업실행 계획을 제시한 지원신청서들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신청단체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우수성에 덧붙여, 사업 지원신청을 위한 일시적인 창작곡 연주를 지양하고, 다년간에 걸친 구체적인 청중개발 계획 등 창작자, 연주자, 청중 사이의 건강한 결과 환류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예산계획에서는 단체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지출의 명분이 명확한지를 살펴보면서 예산계획의 합리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창작곡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기존 창작곡의 재연을 통해 좋은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취지의 사업인 점을 참작하여 협업하는 작곡가의 개인 명성에 대한 고려는 배제하였고, ‘연주된 적이 있는 창작곡’이라는 기준만으로 선택된 다양한 관현악곡들이 연주단체의 실행력과 어떻게 맞물려 설득력 있게 청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작곡가들의 관현악 작품을 재연하여 창작곡 연주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강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가 심의의 주요 고려 대상이었고, 많은 연주단체들이 본 사업을 통해 개인이나 민간의 차원에서 해내기 어려운 ‘창작 관현악곡’의 연주를 해내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의

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사업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 재연주될 경우에는 심의 시 우대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많은 단체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 작품에 관심을 갖고 레퍼토리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점은 고무적이었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각 단체의 중장기 사업 수행 계획, 연주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작품 및 작곡가 선정의 기준, 관객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을 물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대부분 서류에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담겨 있었지만 본 사업이 다년간(3년) 지원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글로 표현되지 못한 중장기 세부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려고 했고, 덧붙여 단체의 운영방식과 재정조달방식 등을 살펴 해당 단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 단체들이 작곡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한 신뢰 형성을 통해 본 사업의 지원하게 된 점은 고무적이었으며, 사업 수행과정에서도 작곡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작업할 의지를 밝혀주어 본 사업이 창작자와 연주단체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연주단체들이 기존의 관객들이 창작곡 연주에까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관객개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목표와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곡 레퍼토리의 발굴과 재연에 분명한 사명감이 있는 단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작곡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창작곡 연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선정에 우선 고려되었습니다. 예산 계획에서는 창작곡의 규모, 악기편성, 협연 여부 등을 살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단체대표자와 지휘자, 연주자, 그리고 작곡자에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례비가 주어질 수 있는지를 고려했습니다. 2차 심의 사후 심의위원 간의 토의를 통해 한정된 전체 예산 안에서 보다 많은 단체들에게 사업추진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그에 따라 각 단체가 지원한 예산보다는 다소 조정된 예산을 배분하여 더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연주단체의 소속 지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이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지원한 단체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 지원사업과 본 사업의 성격을 다소 혼동하거나, 작곡가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여 기존 곡의 사용료 이외에 위촉료에 상응하는 예산을 잡거나, 곡 사용료 외 작곡가들에 의한 연주자 지도나 심포지엄, 집단 창작, 동영상 제작 등,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사업계획들을 제안하거나 예산에 추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도가 좋은 창작곡 연주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도 있겠으나, 본 사업이 창작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연주단체들이 주축이 된 창작곡의 재연을 목적을 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연주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 창작 관현악곡들이 다시 연주되어 더 많은 청중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은 다시금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정단체들은 양질의 연주를 통해 한국의 창작 관현악이 무대 위에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의회원 일동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국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국악)
- 회의일시
 - (1차) 2022.11.22.(화), 10:00~12:00
 - (2차) 2022.11.30(수), 10:00~12: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설현주, 양근수, 오경희, 임준희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사업은 작곡가가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창작 작품들이 일회성 공연에 그치는 폐단을 지양하고 창작곡의 재공연을 지원함을 통해서 우수한 작곡가와 창작작품의 발굴을 통한 창작 레파토리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악분야에 지원한 총 8건의 사업 중 필수자료 미제출로 인한 결격사업 3건을 제외하고 총 5건의 사업이 1차 서류심의 대상이 되었고, 심의위원은 실행역량의 전문성(40%),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타당성(30%), 예산계획의 타당성(20%), 관객개발 및 기대효과(10%)의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사업을 전수검토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는 1차 서류심의를 합격한 4건을 대상으로 1개 사업당 총 15분간 진행되었고, 인터뷰 종료 이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4건의 사업 (1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본 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체들이 대부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우수한 창작작품과 작곡가 발굴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이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지원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민국 작곡가 2인 이상의 창작곡(관현악 포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모 요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작곡가 한 사람을 위한 작곡 발표회나 한 작곡가의 곡이 대부분인 음반 발표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 이러한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사항은 작곡가 선정이나 재공연 될 작품의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합리성, 각 단체의 연주 구성원들이 명확한지, 심의 계획을 수행 할 실행 방안들이 구체적인지 하는 점들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사업이 예년과 다르게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3년 다년도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므로 각 단체의 사업 구성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해 차별화된 비전 및 전략을 통해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의 면모가 보이는 지가 심의 위원들이 공통적인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공연단체의 규모와 사업 실행 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에 따라 산출 근거가 적절한 지를 고려해 책정되었습니다.

(주)예술숲의 경우 사업의 포커스가 젊은 작곡가의 발굴과 창작역량 증가, 창작 작품 개발에 맞추어져 있고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어서 이 사업의 취지를 열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LAY ORCHESTRA의 경우 아카데미 등과 같은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들을 통해 검증받은 우수한 작곡가들의 다양한 창작 작품을 개발한다는 의지가 강하고 전문성에 대한 기대 등이 주요 선정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종국악관현악단의 경우 오랜기간 창작작품을 공연해 오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역량이 신뢰를 주었고 전문적인 작곡가 선정과 다양한 레파토리의 활성화, 차별화된 다년간의 계획과 점진적인 발전 가능성이 주목을 받아 선정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창원국악관현악단의 경우 수년간 창작 작품의 개발에 주력한 단체로서의 역량과 한 가지 주제를 심도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다년간의 점진적인 계획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각 단체들이 선정 요인이 되는 강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위원들의 공통적인 당부 사항은 다년간의 사업을 통한 결과물의 예술지향성과 완성도에 관한 심사 숙고, 작곡가 선정에 있어서도 젊은 작곡가 뿐만 아니라 중견, 원로 등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고려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시기에 더욱 많은 작곡가들과 단체들이 이 지속연주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적인 창작 작품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명곡을 창출해내는 일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